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기획안

: 구룡마을 30년간의 기다림과 소통(疏通)하다.

기획·감독 : 서영태

장르 : 다큐멘터리

포맷 : HD

상영시간 : 90분

제작년도 : 2011년

목 차

구룡마을 30년간의 기다림과 소통(疏通)하다.

1. 기획

- 1.1. 기획의도
- 1.2. 사회적 측면
- 1.3. 영상학적 측면

2. 자료조사 및 취재 내용

- 2.1. 구룡마을
- 2.2. 김윤진 무용단

3. 제작

- 3.1. 구성요소
- 3.2. 스토리보드

4. 제작일정

- 4.1. 전체제작일정
- 4.2. 세부일정

시놉시스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구룡마을 30년간의 기다림과 소통(疏通)하다.



그림 1 퍼포먼스 「구룡동 판타지」 중 손님을 기다리며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내려 주상복합 타워팰리스와 개포주공 1, 2단지 사이를 지나 다다른 구룡마을은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듯했다. 낡은 판잣집과 비닐하우스들이 다닥다닥 어깨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 과거 1970년대 궁핍했던 시절 서울 변두리 풍경 그대로다."

-매일경제, 개발 기대감에 들뜬 강남 구룡마을 가보니 中

문득 구룡마을에 관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시간이 정지한 듯, 70년대의 풍경과 정취가 온전히 머물러있는 서울의 한 마을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의 끄트머리에서 구룡마을의 재개발 확정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머물러있던 그곳이 이제 지워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거대 자본시장의 한자리에서 자신들의 삶과 생존을 걸고 지켜나갔던 1200 세대의 판자촌 구룡마을은 이제 점차적으로 30년의 기다림 끝에 강남의 길거리 풍경에 흡수당해 제 모습을 잃어갈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변화된 구룡마을의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쯤이면 그 흔적을 우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갤러리 한 칸에 걸려있는 사진 몇 장과 신문 기사에 남겨져있는 인쇄물에서 이곳 구룡마을의 풍경을 추억으로 되새김질하며 곱씹을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기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리 쉽게 찾기 힘들 것이다.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은 한 무용가의 창작 과정에 대한 과정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 안엔 현재 구룡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몇 십년간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며 지냈던 사람들의 목소리와 그들이 숨어 지내야만했던 현실에 대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와 영리(營利)에 관한 각자의 욕망은 개발이란 시대적 변화에 맞춰 다시금 서로에게 갈등과 화합이란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강남의 변두리 지역에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잊혀진 마을 '구룡마을'이 다시 세상의 조명을 받기 시작한 지금의 상황에서 투기와 자본이란 자본주의 거대한 사회적 장치들은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을 세상 밖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전달할 수 있을까?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에서 주민들은 하나의 창작자이자 카메라를 통해 조명되는 현 사회의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상징적 존재로 관객으로 하여금 예술과 영상이란 창작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기획되었다.

1. 기획

1.1. 기획의도



그림 1 퍼포먼스 「구룡동 판타지」中 보도사 어머니와 춤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에서 관객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은 '소통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실제의 모습에서 그것이 지닌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성찰'이란 말로 표현한다. 「야곱의 땅」은 마치 형의 보복이 두려워 20년간을 타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번영된 삶을 맞이한 야곱처럼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온 판자촌의 주민들과 외부에서 찾아온 예술가와의 만남을 창작이란 일련의 과정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예술가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자처럼 예술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더 이상 한 개인의 모습이 아닌 사회를 대변하여 그들과 소통(疏通)하고, 세상 밖의 이들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공연이란 형태로 전달하는 대변인으로 그려진다. 이는 사회가 풀어야 하는 숙제들을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소통(疏通)'에 대한 의미에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서 그려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이 가지고 있는 영상학적 가치가 예술에서 주는 감동이 아닌 관객에게 전해주는 사회의식의 환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상이란 매체로 세상과 소통(疏通)하는 방향에 대한 리얼리즘의 체시같은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의 목적은 아래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측면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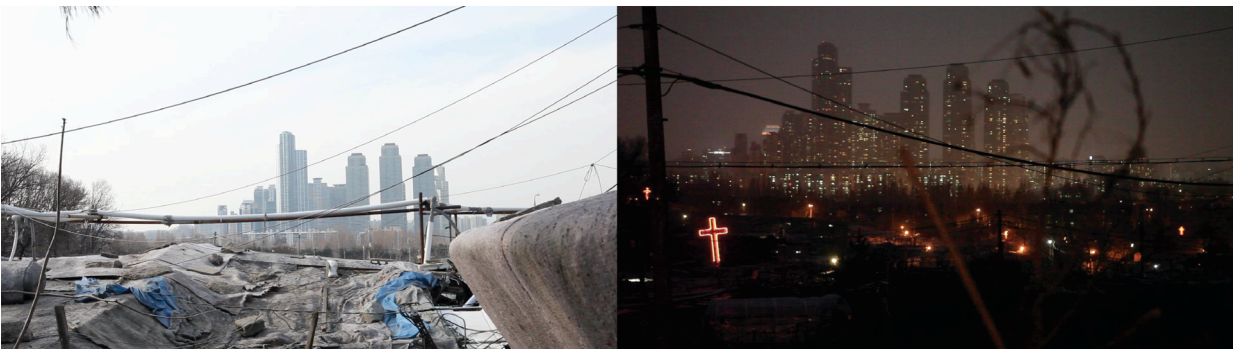


그림 3 구룡마을의 낮과 밤의 풍경

1.2. 사회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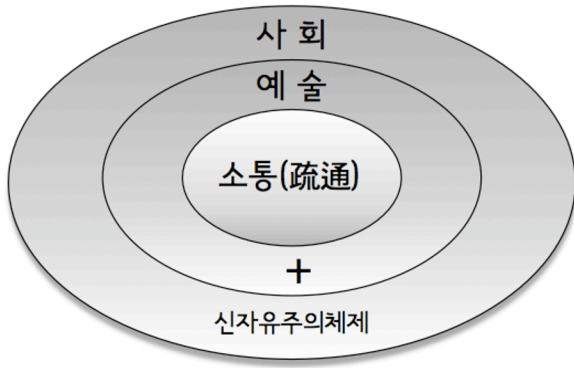


그림 4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의 사회적 측면의 목적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은 사라져야 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영상의 기록과 현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초래한 빈익빈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중심으로 '소통(疏通)의 부재'란 문제점을 예술이란 이면의 작업과 연관지으며, 개인과 집단 간의 만남, 단절된 사회계층간의 갈등과 화합의 한 방안을 관객들에게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3. 영상학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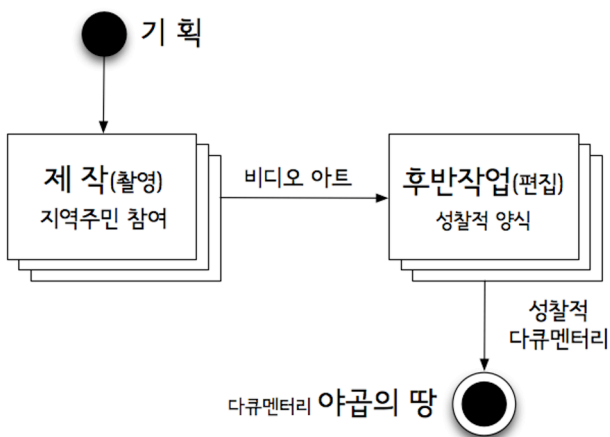


그림 5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의 영상학적 측면의 목적

다큐멘터리와 영상인류학 부문의 세계적 권위자인 빌 니콜스(Bill Nichols)의 양식 분류를 기준으로 현재 국내 다큐멘터리가 주로 취하고 있는 설명적, 관찰자적 양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영상 촬영에 지역주민을 직접 참여시키는 시도를 통해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제작방향, 즉 관객의 관점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재조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2. 자료조사 및 취재 내용

2.1. 구룡마을

2.1.1. '소통(疏通)'에 대한 인식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8일 열린 대국민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 상당한 국정 성과를 거뒀으면서도 효과가 희석된 것은 정부의 대국민 소통 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소통(疏通)을 통한 안정적 국정운영 뒷받침'을 올해 업무목표로 정했다."

-국민일보, '소통'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中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현 정보와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물가안정(51.6%)과 국민과의 소통(62.3%)이라고 답했다."

-한국경제, 51%가"물가안정 시급"... "국민과 소통도 개선" 中

2.1.2. 강남구, 구룡마을이 세상과 소통(疏通)하려고 한다.

"강남구가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주민등록 등재를 허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하지만 불법 무단점유자들을 비롯해 투기세력들이 몰려 복잡한 소유·점유구조를 띠고 있다. 단순히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경우 토지 보상과 세입자 이주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매일경제, 개발 기대감에 들뜬 강남 구룡마을 가보니 中

"강남구 조성명 의장은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지지부진한 개발 문제를 꼽는다. 여기에는 지은 지 30년이 넘는 대치·개포동 일대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은 물론 구룡마을 등 생활환경이 취약한 무허가 판자촌에 대한 공간의 질 개선도 포함돼있다."

-서울신문, 강남구 조성명 의장(끝) 中

"자치구는 시보다 더 주민과 직접 소통을 많이 해야하고,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서울신문, 신연희 강남구청장 中

2.1.3. 구룡마을의 지역적 위치



그림 5 구룡마을 위치도

서울시가 공용개발하기로 한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은 달터마을, 개미마을 등과 함께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무허가 판자촌이다.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강남구청과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양재천을 경계로 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을 벗어나면 곧바로 구룡마을 입구가 나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2.1.4. 개발과 VS 보수파의 갈등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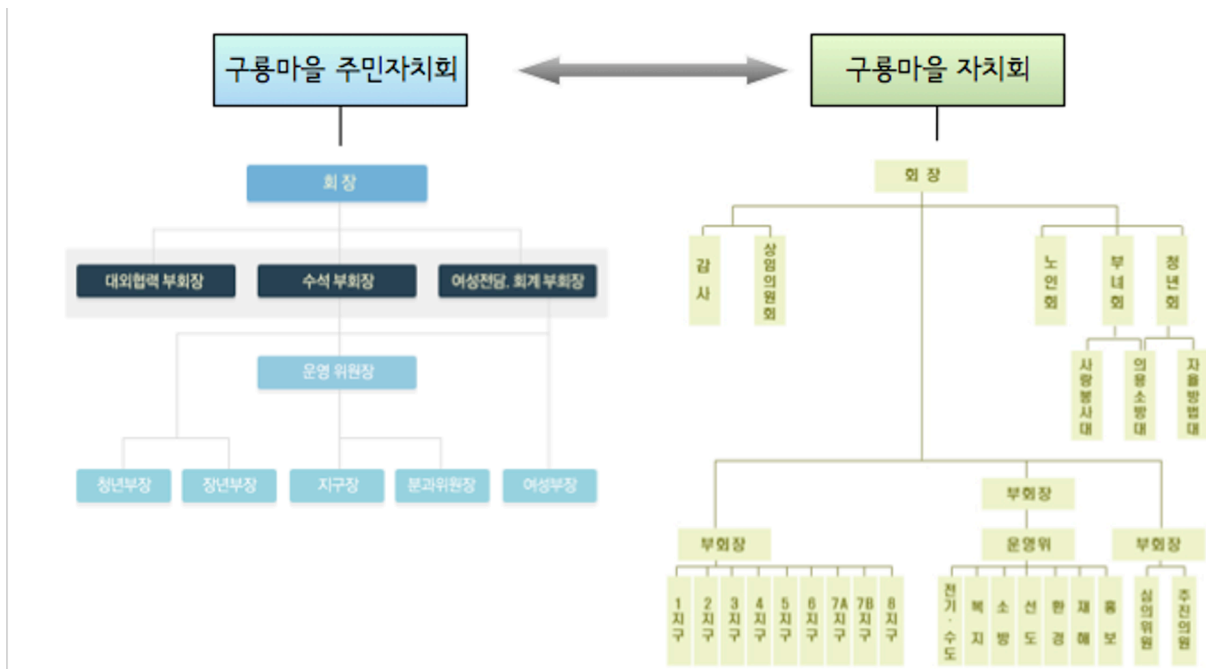


그림 6 구룡마을 자치단체 구조도

현재 구룡마을엔 1242가구 253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지은 탓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열악하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판자집이라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그 가운데 지역 주민들 내에선 두개의 자치단체가 운영되고 있어, 개발과 생존 확보란 문제에 대해 서로를 감시하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공동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2.2. 김윤진 무용단

2.2.1. 무대에서 세상으로 나오다.

김윤진 무용단장은 “직접 참여하는 놀이 형태의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책의 주제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기획했다”며 “무대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놀이로 느끼고 깨닫는 책속 세상 中

"김윤진의 '침묵하라'는 전통 춤의 양식을 해체하고 컴퓨터 음악과 비디오 설치미술 등 다른 장르와 적극적인 결합을 시도해 2005년 초연 당시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준 작품이다."

-연합뉴스, 한국무용 '9인 9색' 춤의 성찬 中

"투사된 영상과 함께 안데르센의 동화를 변형시킨 김윤진 댄스 컴퍼니의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 육체의 변형으로 새로운 표현의 가능성을 추구하는 극단 몸풀의 '허기진 휴식',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재구성한 극단 제12언어연극스튜디오의 무대 등이 기성의 가치에 반기를 내건다."

-한국일보, 젊은 예술가들 명석 제대로 깔았다 中

2.2.2. 한국춤의 원형을 쫓다.

"한국춤의 원형을 탐구해온 안무가 김윤진(40·사진·김윤진댄스컴퍼니 예술감독)씨의 현대무용 <기생 비컴즈 유>가 미국 주간지 <타임아웃 뉴욕>이 발표한 '2009 베스트 댄스 11'로 선정됐다."

-한겨레, 미 주간지 선정 '베스트 댄스11' 中

"기생의 삶에 매료돼 언젠가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그는 지난해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참가차 서울에 왔다가 안무가 김윤진 씨에게 공동작업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멀티미디어 작품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했고, 미국 뉴욕 DTW(Dance Theatre Workshop)와 서울세계무용축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작업을 진행했다."

-매일경제, "한국기생과 흑인예술가 공통점이 많아요" 中

3. 제작

3.1.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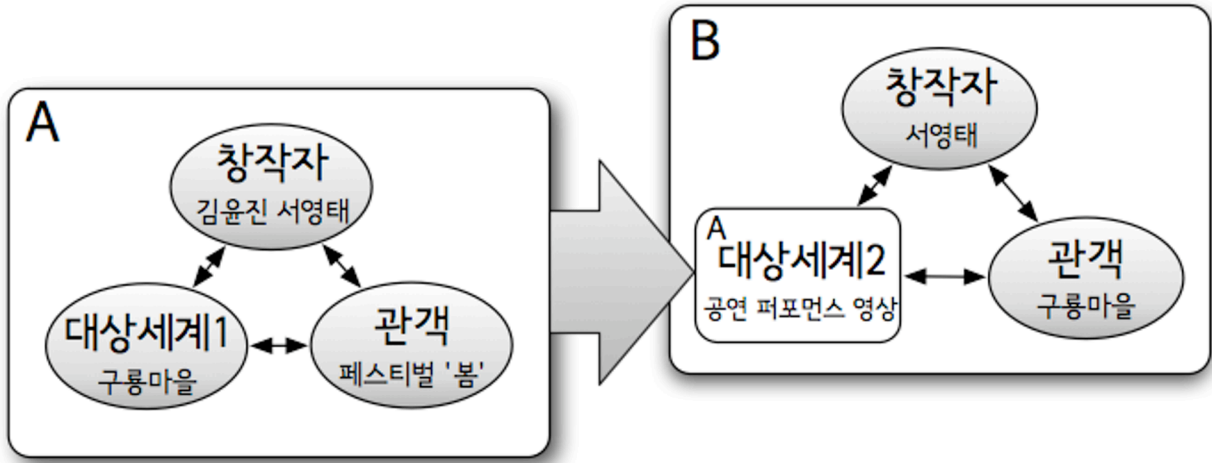


그림 7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의 내러티브 구조도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그림6안의 B)은 위에서 말한 목적에 근거하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탐구와 해석을 하나의 사건(예술 활동)을 통해 재조명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상 속에서의 예술 활동(「구룡동 판타지」란 이름하에 기획되어진 작업)은 드라마틱한 구성보다도 그것이 온전한 대상세계(그림안의 A)로써 존재하며 사건이 관객에게 그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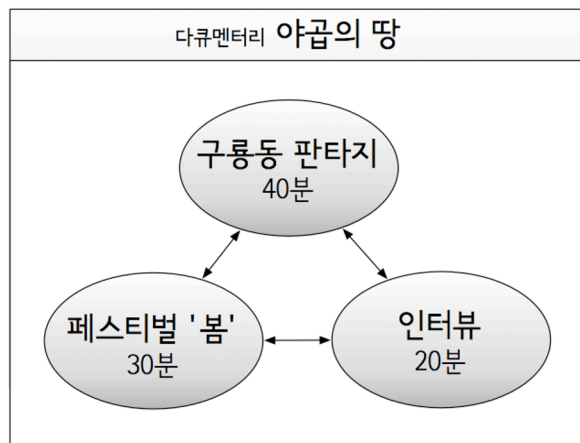


그림 8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의 장면별 구성요소

이런 작품의 구성 방향을 토대로 본 영상은 단절된 지역 내에서의 소통에 해당하는 예술 활동(「구룡동 판타지」란 이름하에 기획되어진 작업), 세상 밖에서의 소통을 의미하는 실제 공연장(「페스티벌 '봄」이란 이름하에 기획되어진 작업)과 그 두 사건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터뷰」 과정을 화면 안에 병치시키면서 '소통(疏通)'이란 과정이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를 관객에게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3.2. 스토리보드



그림 9 퍼포먼스 「구룡동 판타지」 중 구룡마을 투어

*본 스토리보드는 구성요소에서 기획된 러닝타임에 따라 사전테스트 촬영의 이미지를 가지고 제작되었습니다.

「구룡동 판타지」 스토리보드

SCENE		SHOT
SCENE#01 마을투어	Time	00:00:00 ~ 00:17:00
	Image	
	내 용	퍼포먼스의 초대 손님들이 목적지를 향해 마을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실제 주민들과 인터뷰를 한다.
SCENE#02 방 공연	Time	00:17:00 ~ 00:34:34
	Image	
	내 용	목적지인 집의 방 안에서 방주인과 선녀의 공연을 관람하고 함께 참여하며 본 공연을 즐긴다.

그림 10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스토리보드 I

「페스티벌 ‘봄」」 스토리보드

SCENE		SHOT
SCENE#03 공개토론	Time	00:00:00 ~ 00:15:00
	Image	
	내 용	공연장의 관객들에게 「구룡동 판타지」에 대해서 퍼포먼스 참가자들 각자가 구전을 한다.
SCENE#04 상영	Time	00:15:00 ~ 00:25:00
	Image	
	내 용	구전 후, 무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영상을 본 후, 토론을 벌이며 공연이 마무리된다.

그림 11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스토리보드 II

「인터뷰」 스토리보드

SCENE		SHOT
SCENE#05 공연후	Time	00:00:00 ~ 00:20:00
	Image	
	내 용	퍼포먼스의 기획자와 관계자들에게 준비한 질문과 함께 창작이란 의미에 대해서 인터뷰 한다.

그림 12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스토리보드 III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은 8명의 퍼포먼스 참여자들에 의해서 그 이야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여러 장소에서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다수, 다수 등의 여러 만남과 인터뷰를 교차 편집하여 각각의 생각들을 통해서 영상이 말하고 있는 '소통(疏通)'에 대한 생각을 관객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4. 제작일정

4.1. 전체제작일정

「야곱의 땅」 제작일정



*전체제작의 세부 일정은 진행 과정에 있어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야곱의 땅」 제작일정은 후반 촬영부와 편집을 같이 병행하면서 일시적 기간이 아닌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서 하나의 과정과 그 후의 변화된 모습까지 화면에 담아내어 관객에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 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4.2. 세부일정

「야곱의 땅」 촬영일정

「야곱의 땅」 테스트촬영일정	「야곱의 땅」 촬영일정
현지(구룡마을) 사전답사 - 3, 4월	현지(구룡마을) 촬영 - 5, 6, 7, 8, 9월
「구룡동 판타지」 퍼포먼스 - 3월	출연자 인터뷰 - 6, 7, 8, 9월
「페스티벌 '봄」 공연 - 3월	Insert cut (Landscape & Object) - 5, 7, 9월

*세부 촬영 일정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